

# 10월 재보선 정국 '곽노현 변수'

## 조기 사퇴팬 서울시장·교육감 동시선거

## 여야 무상급식 2라운드 논쟁 확산 가능성

야당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던 10·26 재보선 정국이 '곽노현 사태'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서 요동치고 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여당은 물론 야당으로부터도 사퇴압박을 받고 있고, 그의 거취에 따라 서울시장과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이 만일 9월30일 이전에 물러나면 10·26 재보선에 교육감 재선거가 포함돼 그렇지 않아도 내년 총·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되는 이번 재보선의 판이 더욱 커지면서 여야간 한 판 승부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곽 교육감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오세훈 전 시장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10·26 재보선이 여야간 무상급식 2라운드 논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곽노현 사태는 우선 오 전 시장의 광노현 사태로 수세에 처한 한나라당에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초재인 반면, 주민투표 승리로 초반 기세를 잡은 민주당에는 예상치 못한 초대형 악재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전방위로 곽 교육감의 사퇴를 압박하며 대대적인 대야(對野)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파장 최소화를 위해 사퇴요구 대열에 동참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 또다시 부패에 연루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곽 교육감은 즉시 사퇴하고 이제는 자리를 떠나셨으면 한다"며 즉각 사퇴를 압박했다.

문제는 곽노현 변수가 너무 빨리 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이다.

여당의 전략으로 통하는 한 의원은 이날 '곽노현 변수'와 관련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지만 대체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다"며 "아직 두 달이 남은 걸 생각하면 너무 일찍 터진 것이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선거는 규모가 큰 선거로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기에 교육감 재보선은 모를까 서울시장 선거에는 그다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지금엔 한나라당이 아무 리 옳은 일과 정책을 주장해도 한나

라당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안 먹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엔 막판 비장의 무기가 있다. 우리가 정책을 변화도 주고 좀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고 곽노현 문제도 계속 까고 그려봤자, 민주당이 안 되겠다 싶으면 선거 구도를 'MB 심판론'으로 몰고가면 한나라당은 100% 진다"고 전망했다.

한편, 여야는 재보선 체제로 본격 전환하면서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중 10·26 재보선 기획단을 구성하는 동시에 빠르면 금주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접수키로 했고, 민주당도 이르면 이날부터 서울시장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양당 모두 내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선과 함께 중랑급 있는 외부 인사 영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연합뉴스

## 한명숙, 서울시장 출마 여부 주목

### 압도적 지지 불구 재판 진행중...민주당 역풍 우려 고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명숙(67) 전 국무총리가 출마할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29일 정치권에서는 한 전 총리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그의 거취가 10·26 재보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거취가 고민되는 것은 두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만호 전 한신건설 대표한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9개월째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아직도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에는 결심공판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0월 전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이 한 전 총리의 출마를 막지는 못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당선됐을 때는 재판 결과가 따라 시장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군 중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7일 서울 유권

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9%포인트)에서 20.0%의 지지를 받아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21.5%)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또 한국리서치가 같은 날 서울 시민 8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에서는 나 최고위원과 양자 대결에서 47.6% 대 28.6%로 크게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한명숙 카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역대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같은 후보가 두 번 나간 적이 없는데다 현재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고 있어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서울시장 후보' 갈등

### 손학규 "신중대응" 주문에 천정배·정동영 반발

### 주류-비주류 후보싸고 갈등 격화...세대결 예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 난립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자 평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비주류 최고위원들이 즉각 반발,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천정배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의원직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공개발언에서 "다른 야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한 당내 절차를 거쳐 서울시민이 지지할 수 있는 민주진보연영의 통합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며 천 최고위원에게 의원직 사퇴 재고를 요청했다. 손 대표는 그동안 천 최고위원을 접촉해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고 28일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까지 열어 천 최고위원의 재고를 주문했다.

그러나 천 최고위원은 작심한 듯 "손 대표가 처음 사퇴하지 말 것을 권유할 때만 해도 충정으로 이해했다"며 "그러나 사퇴를 만천하에 공표했

는데 이 순간에도 번복하려고 주장하고, 모욕감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요했다. 제왕적 총재도 이렇게 못한 다"고 반발했다. 천 최고위원에 우호적인 정동영 최고위원까지 가세해 "후보가 거론되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다행이고 행복으로 봐야 한다. 단속하고 제어하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며 "당은 즉각 공정한 경선 관리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조기과열 우려를 의식해 너무 미루다 보면 더 큰 것을 놓치게 된다"고 합세했다. 이에 이인영 최고위원은 "지금부터 민주진보 연영은 외출타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 빼놓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장이라 생각하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 간 해묵은 갈등이 격화하면서 치열한 힘겨루기와 세 대결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정보력은 역시 박지원

### '곽노현 파문' 터지자 당에선 '보복수사' 초점

### "2억 시인, 즉각 사퇴를"...빠른 판단력 돋보여



'곽노현 파문'이 정치권을 갈라놓은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뛰어난 정보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8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억 지원을 인정한 뒤 곧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곽 교육감, 선의로 박교수께 2억 주었다. 진실로 유감"이라며 "곽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빨리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7일까지만 해도 검찰의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했던 입장을 바꿔 사실상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글에 대한 트위터 댓글성과 노선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 간 해묵은 갈등이 격화하면서 치열한 힘겨루기와 세 대결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이 인정했기에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시대가 변했다. 본인이 인정했던 사실에 초점을 두면 이해가 되리라 믿는다"며 "저도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당 상황에서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당시 당 지도부는 '보복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9일 아침 곽 교육감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 지도부는 일제히 사퇴를 종용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박 전 원내대표의 빠른 대처 능력 뒤에는 검찰·법조·언론계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의 한 측근은 "박 전 원내대표는 곽노현 파문이 일자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보를 종합했다"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곽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 민주당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日 차기 총리에 노다 요시히코

### 민주당 대표 선출...오늘 취임



일본의 차기 총리 자리가 걸린 집권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54·사진) 재무성이 승리했다. 노다 재무상은 30일 열리는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의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제95대 총리에 취임한다. 일본 민주당은 29일 오전 도쿄시내

호텔에서 중의원·참의원 의원총회를 열고 당 대표 경선을 실시해 노다 재무상을 차기 총리에 오를 새 대표로 선출했다.

노다 재무상은 1차 투표에서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그룹의 지원을 받은 가이 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에 밀렸으나 결선 투표에서 가노 미치히코 농림수산상,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 그룹 등의 지지를 역전 승리했다. /연합뉴스

## 한도당위원장 선거 3파전

내달 2일 실시되는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29일 한나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3명의 입자가 등록을 마쳤다.

이날 '정몽준'계의 김문일 담양·곡성·구례연합위원장과 홍준표 대표의 광주·전남지역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 박연호 전 뉴라이트 광주·전남 상임대표, '친 이재오'계로 분류되는 천성복 목포당협위원장 등 3명이 등록했다. /최권일기자 cki@

(제)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1-50호

### 『2011년도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지원대상 기업 모집공고

지역내 전략산업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마케팅을 직·간접 지원하여 기업의 마케팅 활동 활성화와 촉진을 위해 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1년 8월 23일

(제)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장이 광주광역시 소재 제조업으로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계획이 기 지원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종류 자 또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생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기업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상식, 감사의견이 "의견결정"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범위

구분	지 원 분 야	비 고	
내 용	- 기술·경영 멘토링지원 - 홍보물(홈페이지) 제작지원 - 정보화 지원	- 인준 및 특허지원 - 마케팅(전시회참가)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지원분야는 다수선택 가능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지원금액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70%이내, 최대 지원금 15백만원 이내 지원 (예시 : 총사업비 20백만원 소요시 신청지원금 14백만원, 기업부담금 6백만원)		

□ 접수기간 및 추진일정

- 지원대상기업 모집 : 공고일 ~ 9. 2(금)
- 사업협약 및 수행(코디네이터 활동) : 9. 23 ~ 12. 31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기업 선정 통보 및 담당코디네이터 배정 : 9. 16(금)
- 지원성과 보고서 작성 및 취합 : '11. 12월초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등

- 신청서교부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 접수 및 문의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333(대촌동 958-3) 본부동 1층 기업지원부 박래열 (Tel : 602-7213, david@gtp.or.kr)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역산업진흥사업 공동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진흥사업 공동평가관리지침」

(제)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1-48호

### 2011년 기술완성도 제고 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내 연구개발사업 성공과제의 기술사업화 연계 및 시장 진입을 위한 개발자금 지원으로 기술완성도 제고와 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1. 8. 12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및 지원 개요

가. 개발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나. 지원대상 기업 및 내용

-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광주광역시 관내 중소제조업체로서 신기술보육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이 '09. 1. 1 이후 ~ '11. 7. 31 까지 최종 평가결과와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를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2) 지원내용
  - ① R&D 지원 : 8개 과제 내의, 과제당 30,000천원 이내
  - 성공기술의 응용·융합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개발 지원
  - ② 패키지형 지원 : 2개과제 내의, 과제당 65,000천원 이내
  - 기술구매 + R&D지원(시제품개발) + 상품화 기획+ 디자인개발 + 마케팅에 대한 일괄 혹은 선택적 지원
  - ※ 패키지형 과제 접수 및 평가결과 미접수 또는 미신청시 R&D 지원과제로 대체

2. 지원조건

가. TP지원금 및 기업 부담금

- TP 지원금 : 총사업비의 75%이내로서 분야별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업 및 위탁기관 부담금 : 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현물)
- ※ 단, 기업부담 현금은 TP지원금의 10%이상 부담

나. 성공부담금 준수 및 지원금 환수

- 사업기간 종료후 기술개발의 결과로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TP지원금의 20%를 성공부담금으로 납부
- "실패"로 평가될 경우, TP지원금의 50% 환수

다.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시 지원금의 50% 지급
- 사업추진 3개월 경과 후 중간검점, 지원금 잔액 50% 지급

3. 제출서류 및 신청서 교부 등

가. 제출서류

- 1)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8부(원본1, 사본7)
- 2) 위탁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해당기업)
- 3)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4) 신기술보육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성공 통지문서 사본 1부
- 5) 최근 1년간 재무제표 1부
- 6) 각종 인증서 사본 등 각1부(해당 기업)
- 7)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1부

나. 신청서 교부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공지사항

다. 신청서 교부기간 : 11. 8. 11(목) ~ 9. 02(금)

- 1) 신청서 접수기간 : 11. 8. 29(월) ~ 9. 02(금), 17:00까지
- ※우편 접수 시의 경우 도착일 기준에 한함
- 2) 문의처 및 접수처 (500-706)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1층 기업지원부 천상오 과장 (062-602-7211)

4. 신청자격 제한

- 분사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관내가 아닌 기업
- 금융거래 부실기업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포함)
- 신청과제의 내용이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과제
- 정부 등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대표자, 과제 책임자 포함)
- 기 기술완성도제고사업에 참여한 기업
- 사업참여는 1개 기업당 1개 과제

5.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진흥사업 공동 운영요령」,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관리지침」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광주테크노파크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사업 관리요령